

광양 과수농가 “방제·전정 작업 부담”

시, 매실·단감·뽕은감 재배 1107가구 특산물 실태 조사
안정적 판로 확보·전지작업 지원 대상 확대 등 희망

광양지역 매실과 단감 등 지역 특산물 생산 농가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영농작업은 '병충해 관리'와 '전지' (가지 모양 만들기) 작업이고, 수익을 저하가 가장 큰 고민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매실 1000㎡ 이상, 단감·뽕은감 500㎡ 이상 재배농가 중 1107가구 (매실 617, 단감·뽕은감 490)를 대상으로 '2019년 광양시 특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매실의 경우 1000㎡ 이상 재배 농가는 3833호이며, 재배면적은 1585.1ha,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은 4135.4㎡(0.41ha)로 나타났다.

매실 농가는 연령별, 매실 재배면적, 판매액별로 볼 때 '전지·전정'이 가장 부담되는 영농작업으로 꼽았다. 출하처로 매입가격이 높은 '직거래'를 가장 선호했다.
영농교육으로는 '전지·전정 및 접목기술'과 '병충해 관리'를 희망했으며, 매실 특화작물 입지 강화 방안으로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를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응답했다.
단감의 경우 500㎡ 이상 재배 농가는 1428호이며, 재배면적은 284ha로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은 1988.6㎡(0.20ha)로 나타났다.

경영주의 고령화로 부담되는 영농작업으로 '병충해 관리'와 '전지·전정'을 꼽았다.
단감의 상품화를 위해 '농약비'를 가장 많이 지출했고, 수익을 증가를 위해 장기간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
향후 지원 요구사항으로 '전지전정 지원 대상 확대'를 가장 희망했다.
뽕은감은 500㎡ 이상 재배농가는 1664호였다. 재배면적은 504.2ha,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은 3029.9㎡(0.30ha)였다.
이재운 광양시 총무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역 특산물의 활성화와 새로운 농업소득원 창출로 이어져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 네덜란드서 '유기농 툴립' 선물 받다

수교 60주년 기념 알뿌리 1700구 받아... 내년 4월 순천만국가정원서 '활짝'

순천시는 네덜란드 왕정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와 함께 툴립 알뿌리 1700구를 선물로 받았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네덜란드 왕정이 허석 순천시장을 향해 보낸 편지에는 '2021년이 한국과 네덜란드가 수교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라는 것과 순천시와 네덜란드 왕정이 맺은 우호·협력관계 기념, 미래 연대를 공고히하고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유기농 툴립 알뿌리 1700구를 보낸다'고 쓰여있다.

네덜란드 왕정이 보낸 툴립 알뿌리는 한국으로 보내는 첫 번째 유기농 알뿌리이며, 경작에서 보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농약이 사용되지 않은 종류라고 설명돼 있다.
편지는 내년 봄에 개화를 위해 가능한 빨리 식재해야 하며 순천시민과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툴립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향유하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담았다.
순천시는 네덜란드에서 선물받은 유기농

툴립 알뿌리 1700구를 순천만국가정원 내 네덜란드 정원에 심을 예정이다. 툴립은 네덜란드 수교 60주년 기념일인 내년 4월 초 순천시민과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활짝 핀 모습을 선보일 전망이다.
순천시는 올해 봄에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 전달을 위해서 툴립 알뿌리 드라이브 스루 나눔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한-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네덜란드 왕정이 순천시에 유기농 툴립 알뿌리 1700구를 선물했다. 사진은 순천만국가정원 툴립. <순천시 제공>

나눔 실천 온정의 손길

GS칼텍스, 5000만원 상당 김치·내복 지원

GS칼텍스는 연말을 맞아 여수지역의 소외이웃을 위해 500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와 내복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GS칼텍스는 여수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 김장비용 3500만원을 지원하고 홀몸 어르신을 위한 내복 구입비로 1500만원을 지원했다.
GS칼텍스는 해마다 '김장 나눔 대축제'에서 김치를 담가 사회복지시설과 홀몸 어르신 가정에 김장 김치를 전달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김장 대신 김장 비용을 후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곡성 옥과농협, 홀몸 어르신에 김장 430박스

곡성 옥과농협은 최근 홀몸 어르신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옥과농협은 김장김치 430박스를 옥과·오산·겸면 3개면의 홀몸 어르신 및 취약 농가에 전달, 훈훈한 정을 나눴다.
구정훈 옥과농협 조합장은 "지역사회에 온정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

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홀몸 어르신과 취약 농가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광양시, 산단 중기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입사 5년 미만 월 최대 30만원

광양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입사 5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양시는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아파트나 원룸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임차비용의 80% 이내에서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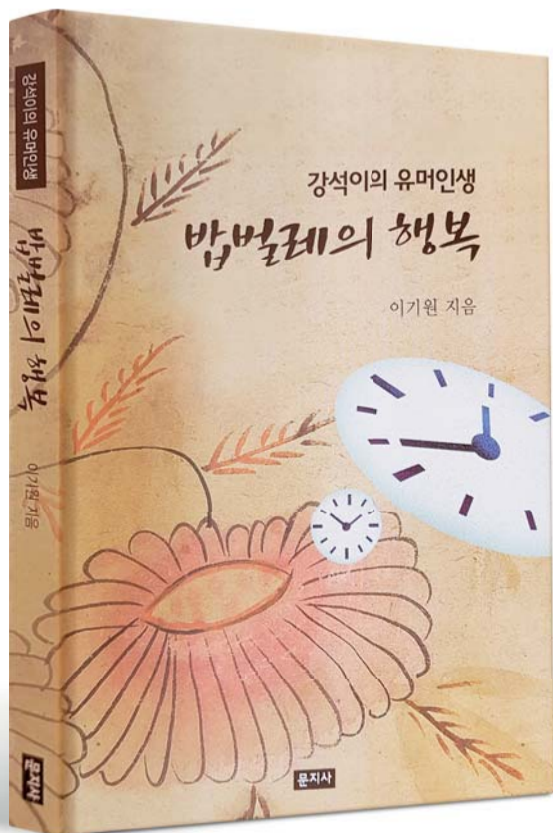
올해로 2년째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연간 1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정현복 시장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단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거 안정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하고 있다"며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오동도 탐방로 일시 폐쇄

내년 1월3일까지

여수시는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국립공원 오동도의 탐방로를 일시 폐쇄한다고 23일 밝혔다.
연말인 오는 31일 오후 6시부터 내년 1월1일 9시까지는 오동도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전면 통

제될 예정이다.
여수시는 연말 해넘이와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몰릴 것에 대비해 오동도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해마다 항일암에서 열었던 새해 일출제 행사도 취소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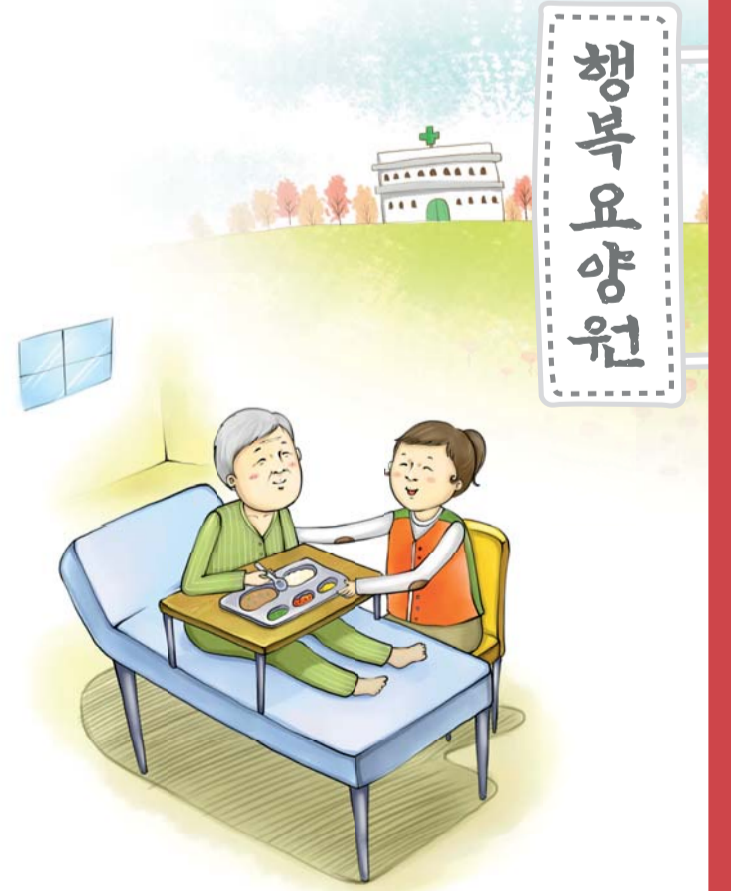
정가 12,000원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밤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
전주(영풍문고, 응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